

경희대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예체능계)

[10월 3일(일) 오전]

전형유형 ( )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아래의 모집단위별로 배점이 다르니 논술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모집단위**

서울캠퍼스 :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영어학,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의상학

국제캠퍼스 : 인문·예체능계 전 모집단위

**B모집단위**

서울캠퍼스 :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무역학, 언론정보학, 경영학, 회계·세무학,  
Hospitality경영학, 관광학, 자율전공학, 한의예(인문)

I ~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해 가던 영국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써 공리주의가 등장하였다. 그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벤담(J. Bentham)은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 제시하였다.

밀(J. S. Mill)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하여,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였다.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이기적 윤리가 내포된 자기중심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원리가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합친 총량의 크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행복을 누리려는가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나]

Individuals have rights, and there are things no person or group may do to them without violating their rights. So strong and far-reaching are these rights that they raise the question of what, if anything, the state and its officials may do. How much room do individual rights leave for the state? The minimal state limited to the narrow functions of protection against force, theft, fraud, enforcement of contracts, and so on, is morally justified; any more extensive state will violate person's rights not to be forced to do certain things, and is unjustified. The state may not use its coercive apparatus for the purpose of getting some citizens to aid others, or in order to prohibit activities to people for their own good or protection. Accordingly, the state should treat its people as individuals, who may not be used in certain ways by others as means or tools or instruments; it should treat its people as persons having individual rights with the dignity this constitutes. Treating its people with respect by respecting their rights, it should allow its people, individually or with whom they choose, to choose their lives and to realize their ends and their conception of themselves, insofar as they can.

<뒷면에 계속>

[다]

상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한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질의 균형에서 행동의 법칙을 연역하려는 노력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다. 특질의 균형이 아니라 정의의 균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은 태초부터 특질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왔다. 어떤 행동 방침이 자신이나 남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또 알 수도 없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과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정의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나는 정의의 균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정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애정,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품고 있는 그런 애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올바른 관계 및 그들의 최고 이익은 궁극적으로 모두 정의와 애정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주인이 자기가 주고 있는 임금률에 따라서 하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보자. 주인은 하인들이 빈둥거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인들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빈약한 음식과 형편없는 방을 주고, 하인들이 떠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매사에 한계점까지 그들을 밀어붙인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하더라도, 주인 쪽에서 본다면 이른바 '정의'라는 것을 범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주인은 하인의 시간과 봉사를 모두 자기가 갖기로 합의하고, 계약대로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하인에 대한 처우는 가사노동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임금률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하인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고, 주인은 하인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동을 요구해야만 비로소 그 하인의 노동이 가진 실제 시장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쓰면 하인들에게 평균적으로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고, 따라서 사회도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를 통해 하인들에게도 이익이 환원되므로 결국 하인들 자신도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경제학 대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인이 증기나 자력이나 중력처럼 계산할 수 있는 힘을 동력으로 삼는 기관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인은 그와는 반대로 영혼을 동력으로 삼는 기관이다. 영혼이라는 이 특수한 힘은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모든 방정식 속에 하나의 미지수로 들어와, 그들의 계산 결과를 모조리 그르쳐 버린다. 영혼을 동력으로 삼는 이 기묘한 기관은 많은 보수나 강한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기관의 동력, 바꿔 말하면 인간의 의지나 정신이 그 고유의 연료, 즉 애정으로 최대의 힘을 발휘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최대한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마]

다음은 가상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이 사회에는 A, B, C 세 명만이 존재한다. 세 사람은 일정량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량과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사람	자본량(X)	생산량(Y)
A	9	3X
B	4	2X
C	2	X

<다음 장에 계속>

경희대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예체능계)

[10월 3일(일) 오전]

전형유형 ( )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논제 I-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논지를 비교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30점, B모집단위 배점 20점]

<논제 I-2>

제시문 [다]와 [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각각 밝히고, 이를 근거로 [가]와 [나]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30점, B모집단위 배점 20점]

<논제 II-1>

어느 날 제시문 [마]의 사회에 사회개혁가가 등장하여 자본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것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는 세 사람에게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 사회적 총생산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설명하시오. 이를 근거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에서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20점, B모집단위 배점 30점]

<논제 II-2>

제시문 [마]의 사회가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의 도입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세 사람의 의견은 확률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A가 찬성할 확률은 0.2, B와 C가 찬성할 확률은 각각 0.6과 0.8이다.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정책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행된다 고 할 때, 그 시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도출 과정을 설명하시오.

[401자 이상~6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20점, B모집단위 배점 30점]

<끝>